

Farah Pahlavi

An Enduring Love

끝없는 사랑

My life with the Shah

To the Iranian People, To my Children, For the love of my Emperor.

이란 국민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황제께

Remember its flight, the bird is mortal.

저 필멸(必滅)의 날개짓을 기억하라.

Forough Farrokhzad

포루흐 파로크자드(1935~1967)¹

¹ 교통 사고로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이란의 천재 여류시인.

역자의 말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문명을 이룩했던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이슬람의 것으로 알려진 모든 것은 사실 이란의 것입니다. 하룬 알 라시드의 바그다드의 영화 따위는 호스로 1세 시절 크테시폰의 그것의 절반도 되지 못하고, 그들이 보전하였다는 그리스 로마의 고대 서적은 오히려 페르시아가 보관한 것을 그들이 다 태워 버리고 절반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천일야화의 주인공이 사산 왕조의 샤푸르 2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투란도트의 남편이 사산 왕조의 카바드 1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란은 억울합니다.

그런 이란에게 세기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모함마드 레자 팔레비(1919~1980). 그의 치하에서 이란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서는 듯 보였습니다. 30년 전, 남녀가 평등했을 때, 그들이 즐거웠을 때, 그들의 경제가 찬란하게 빛났던 시절... 1979년 이슬람 폭동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까지.

파라 팔레비 황후 페하와 4년째 펜팔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인들에게 이란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이라는 마음에서 번역합니다.

Javid Shah (황제 만세)

역자 이유섭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979년 1월 그 날 아침을 생각할 때면 항상 가슴을 아려오는 느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몇 달째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던 혼란이 지속되고 있던 테헤란이었지만, 그날따라 도시 전체에 무거운 침묵과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가 마치 숨을 멈추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정확한 날짜로 1월 16일이었습니다. 우린 이란을 영영 떠나야 했습니다. 황제께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일지, 오직 나는 그 생각뿐이었답니다.

마침내 우리는 떠났습니다. 사실 열흘 전부터 우린 망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그저 몇 주 동안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께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시면서 말예요.

황제의 두 눈에 어려 있는 깊은 시름을 본 나는 정말로 우리가 잠시 떠나는 것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난 황제와 달랐어요. 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이란을 통치하신 황제께서는 곧 다시 그토록 사랑하시던 국민들의 신임을 되찾으실 것이라고요. 황제의 치세 하에서 이란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했나요. 평화가 돌아왔고, 모두가 인정하는 치적. 그렇습니다. 난 그 때만 해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알보르즈산²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싸늘한 바람이 새벽녘을 휩쓸고 있었습니
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요했어요. 황제께서는 몇 시간 주무셨습니다. 지난해 겪은 수많
은 일들 때문에 병이 드신 황제는 체중이 날로 줄어들고 계셨죠. 잠시 후 계엄령 따위는 이미 머리속
에서 지워버린 폭도들이 군인들마저 무시한 채 지붕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들이
궁전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꼼짝없이 듣고 있어야만 했어요. “알라는 위대하다, 황제에게 죽음을!” 그
엄청난 모욕 속에서 황제를 어찌 보호해 드릴 수 있었겠나요. 힘없는 내가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먼저 피신시켜야 했어요. 내 사랑하는 막내 레일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깡총거리
고 있었죠. 알리 레자는 전혀 긴장하는 눈치 없이 아버지를 향해 사랑스런 미소를 띄며 웃고, 농담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들은 일단 먼저 궁전을 떠나야 했어요. 20년간 너무나도 행복했던 우리 가족
의 단란한 삶은 절대 끝날 일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난 아이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집안 대들보, 큰아들 키루스³는 미국에서 공군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때 키루스는 17살이
었습니다. 매일매일 집에 전화를 걸곤 했었죠. 미국 TV에서는 키루스가 매우 위험하다고 떠들고 있었
습니다. 나는 키루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신신당부하였죠. 물론 사실 나
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 혼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요. 노동자들은 매일 파업
을 일삼고, 정유시설도 멈춰버렸습니다. 국고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이란을 덮고 있는
것은 증오, 거짓말, 도발로 가득찬 시위대들의 함성뿐이었어요. 나는 황제와 키루스가 통화하는 걸 들
으면서 키루스가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이 궁전을 포위하기 시작했
어요. 달이 지나고 달이 지날수록, 우리 이란의 사업가들, 공학자들, 박사들, 경영자들, 모두 떠나갔습
니다. 이란의 유일한 정통 정부가 마치 난파선처럼 가라앉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떠나보낸 뒤 우리에게 남은 며칠간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겨우 여덟 살이었던 레일라는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긴장 속에 있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열다섯 살, 열두 살이
었던 파라나즈와 알리레자는 불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큰 딸 샤나즈는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궁전 정원의 커다란 철봉 뒤에 서서 조용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샤나즈는 놀란 것 같았어요. 여느 날처럼 거리를 가득 채우던 귀여운 어린이들을
이제는 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두고 말이죠. 그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와중에 황제께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있었어요. 장군들, 정치인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몇
몇 성직자들이 말예요. 혹자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강구하자고 말하고 있었고, 혹자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 황제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황제께선 알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려 지키는 옥좌 따위는 지
킬 수 없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독재자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황제다. 그렇게 못 한
다.” 황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 보내셨죠.

황제께 남은 선택지 중에 가장 그나마 나은 것은 떠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일단 아이들부

² Alborz Mountain. 테헤란을 등지고 펼쳐진 산을 말한다.

³ Reza Cyrus Pahlavi II. 현재 팔레비가 당주. 맏아들.

터 보내기로 작정을 했죠. 파라나즈⁴는 이미 한 달 전인 78년 12월에 미국에 있는 오빠 곁으로 떠났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와 함께 알리레자와 레일라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알리레자는 그 애 만을 위해 만들어진 황제의 깃발과 군인 제복을 꼭 입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언제 이 애들을 다시 만날까요? 일단 우리를 좀 받아 달라는 제안이 들어오자, 미국은 망설이고 있었어요. 분명 우리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기착지는 이집트가 되었습니다. 우린 아이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되었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나는 황제와 따로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황제는 집무실에서 일찍 일어나셨죠. 매일 그러셨듯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란에 대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황제께서는 아마 시간을 돌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때 그 분의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⁴ Farahnaz. 둘째 딸.

